십자가 취임사

(요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취임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습니다.
20여 분간 진행된 취임사의 keyword는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바대로, 경제부흥 그리고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세 가지로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꽤 특징적인 거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다른 점이 국민행복, 국민이라는 집합명사를 써서 행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이루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박 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미시적인 담론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거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박 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의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미시적 담론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겠느냐?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그리고 창조 경제, 맞춤형 복지, 문화발전, 이런 것들을 꼽은 겁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꿈꾸고 있는 것을 성서적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모든 방면이 형통하고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가득한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을 이루어내겠다는 얘기에요.
감사하고 그 포부를 지지해 마지않습니다.
결국 한 마디로 말하면 샬롬인데, 이 샬롬이 신약성경에 오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으로 번역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국민행복, 대한민국 국민의 샬롬을 약속하고 평안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끼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새롭게 부임하면서 하는 취임사와 같은 위치와 같은 시점에서 행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어떤 취임사에요? 십자가 취임사.
대통령의 자리도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도 자리라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취임사로 해주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라는 간단한 한 마디입니다.
사실 모든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동어반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에 샬롬을 이루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 얘기로 축약될 수가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도 평안을 위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개혁을 추진하고 도약의 디딤돌로서의 통합을 이룬다, 이것도 결국 평안을 위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외환위기가 닥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은 것도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주님의 비교 속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것은 그 평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결국은 평안을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에 취임하는 사람이 평안을 약속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과 나라의 평안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마땅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통령 자리나 임금님 자리에 취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취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부터 구원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실 형편에 계신 분이 평안을 약속하게 돼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분이 주는 평안을 누가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모순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평안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문화융성, 맞춤형 복지 등을 제시하시면서 국민의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평안의 근거와 여건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바로 앞의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믿음

을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취임사의 내용을 평안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마치 대통령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평안을 약속하듯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교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자, 어떻게 다릅니까?
은근한 우리의 속셈으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내 가정에 내려부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가정에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 문화융성을 통해서 내 가정에 평안이 가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이 하기까지 기다리느냐? 지금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같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평안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어쨌든 평안을 느껴야 평안이고, 마음이 행복을 느껴야 행복입니다.
몸은 그냥 우리 마음이 의존되어 있는 의지처이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은 평안을 느끼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육체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속하게 되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우리 육체가 처하는 현실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하고, 맞춤형 복지를 이루어, 우리 몸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잘 만듦으로써 우리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받아들일 경우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 줄 텐데,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는 샬롬이 주어질 것이다.
성령을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맞춤형 복지, 문화융성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성령님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몸에 의존된 마음이 몸을 통하여 세상의 형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몸에 의존되지 않고 마음이 성령에게 의존됩니다.
성령에게 의존되면 성령님은 도대체 몸이 세상에 대해 느끼듯이 무엇을 우리마음으로 느끼게끔 해준다는 얘깁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느끼게끔 해준다는 얘깁니다.
우리 몸은 인간세상을 내 마음이 느끼게끔 해주는데,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하여금 천국세상,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게 다 하나님아버지의 말씀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의미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무엇 하는 분입니까?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우리 마음에 복사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아버지의 계획을 복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에 대한 아버지하나님의 마음속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천국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몸을 통하여 접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게 해주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룰 경제부흥의 상황,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질 그런 상황,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는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이 근거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 점점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느끼게 되고, 정이 들고 깊어가는 천국을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느끼고, 천국에 근거되게 함으로써 평안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세상의 맞춤형 복지의 상황에 근거된 평안이면 세상에 근거된 평안이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근거돼서 지금 내 마음이 느끼는 평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느끼는 평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통하여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평안을 느끼고, 근심 걱정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근거됨으로 평안을 느끼게 되는, 이 완연한 구분이 가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 참으로 절묘한 말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겠느냐?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서른셋밖에 안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하면 천하를 호령할 때입니다.
주님은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칸이 죽어서 끝났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아쉬운 게 많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나두시고, 칭기즈칸이 이룬 제국,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제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대한민국 땅까지 이미 다 점령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을 다 포함해서.
왜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으리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통일시켜서 알렉산더와 칭기즈칸 같은 왕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보다도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서른세 살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서른셋밖에 안 된 분이 부활하셔서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럴 정도의 아버지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걸고, 그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나의 고백입니다.
왜 죽습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만큼 좋은 분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좋다는 것을 주님이 떠나신 사건을 통하여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여 세상을 등질 때 성령님께서 오시고,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서는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천국과 그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복사해주시기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천국과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선적인 현실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이 현실이 될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스테반의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의 가능성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해 주시니까, 천국을 우선적인 현실로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 속에서 다~ 깨끗하게 죽어간 겁니다.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행복이 경제부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60세 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부흥, 문화융성 위에 근거되면 국민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naive 한 확신입니다.
몰래, 대통령이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몰래, 정말 국민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끼치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와대에서 몰래 박근혜 대통령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만이 정말 국민을 진정한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경제부흥? 열 개를 얻으면 사람의 죄성은 스무 개를 원하게 돼있습니다.
스무 개를 얻으면 사십 개를 원하게 돼있어요.
경제부흥 가지고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경제문제, 문화문제, 외교문제, 정치문제,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평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처삼아 오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십자가 취임사'
주님의 십자가 취임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자리로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행해주신 십자가 취임사에서 평안과 평안의 근거로 제시된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우리의 십자가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샬롬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